이라크 전쟁…'최악'의 시나리오, 장기화로 가는가

- 한 달 내 조기 종전 '난망', 실질적 투자 확대책 마련 · 전후 복구 공사 참여 외교를 -

올 3월에 발발한 이라크 전쟁은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전쟁의 흐름에 따라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가, 유가, 환율 등 가격 변수들이 큰 폭의 등락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건설산업도 마찬가지이다. 중동 지역의 비중이 높은 해외 건설 부문은 물론 국내 건설 부문도 이라크 전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전쟁의 흐름에 따라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라크 전쟁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와 해외 부문으로 나누어 전쟁 시나리오별 파급 효과를 살펴보고, 기업 및 정부에 대한 경영 또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라크 전쟁 시나리오는 전쟁이 한 달 내외 종결되는 경우(시나리오 1), 전쟁이 상반기까지 지속되는 경우(시나리오 2) 및 전쟁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됨과 아울러 아랍권의 결속이 강화되면서 전장이 이라크 외 지역으로 확대되는 경우(시나리오 3)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국내건설

장기화될 경우 건설 투자 위축 우려

국내 건설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발발한 이라크 전쟁은 그 흐름에 따라 국내 건설 경기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조기에 종결되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건설 경기의 하향 속도가 둔화되고 조기에 회복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건설 경기의 하향 속도와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가 국내 건설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유가 상승에 따른 건설 원가 상승을 들 수 있다. 두바이 유가 기준으로 40 달러까지 상승할 경우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건설 원가는 2% 이하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직접적인 파급 효과보다는 국내 실물 경제 및 소비 · 투자 심리에 미칠 악영향이 건설산업에 미칠 간접적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는 세계 경제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를 야기함과 아울러 국내 소비 ·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킴으로써 국내 경기 부진을 초래하게 된다. 국내 경제 부진과 국내 소비 · 투자 심리 위축은 최근 들어 부진 조짐을보이고 있는 민간 주택 및 비주거용 건축 수요를 크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민간 건설 수주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 공사의 착공 또는 공사 진행이 지연되면서 건설 투자의 증가세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실시될 경우에는 공공 · 토목 수주 및 투자의 증가세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달 안에 끝나면 '도움'

시나리오 1처럼 전쟁이 한 달 내외에 조기 종결되면 유가가 하락하고, 수출이 호전되면서 소비 · 투자 심리가 높아져 오히려 국내 경제와 건설 부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북핵 문제 해결 여부가 국내 경제와 건설 부문의 회복 정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조기 종결되고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한 · 미 정상 회담을 통해 북한 핵 문제가 크게 완화되면 건설 수주와 투자는 경기 부양책의 실시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공공 부문의 증가세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당초 부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 민간 건설 부문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동산 경기도 다소 되살아나면서 아파트 가격의 경우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의지와 주식 시장의 회복에 따른 유동 자금의 이동을 감안해볼 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개전 초의 단기전 예상 전망과는 달리 이라크 전쟁이 혼전 양상을 보이면서 세계 경제 및 국내 경제 그리고, 우리 건설산업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시나리오별 국내 건설산업 파급 효과

구분		국내 경제	건설 물량	부동산 가격
시나리오 1	북한 핵 문제 완화	성장률 5%대 후반 6%대 초반	수주 증가율 2% 내외 (84조원대)	3% 내외 상승
	북한 핵 문제 지속	성장률 5%대 중반	수주 증가율 -1% 내외 (82조원대)	1% 내외 상승
시나리오 2	북한 핵 문제 완화	성장률 4%대	수주 증가율 -3% (80조원대)	1% 내외 상승
	북한 핵 문제 지속	성장률 3%대 중반	수주 증가율 -5% (78조원대)	3% 내외 하락
시나리오 3	북한 핵 문제 지속	성장률 2% 내외	건설 수주 10% 이상 감소	10% 이상 하락

3%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핵 문제가 완화되지 않고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국내 경제 및 건설 경기 회복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 커

시나리오 2와 같이 이라크 전쟁이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경우 건설 수주는 상반기 중에 민간 건축 수주를 중심으로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증가세로 반전될 것이며, 북한 핵 문제 완화 여부에 따라 하반기의 증가 폭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으로 볼 때 건설 수주는 북한 핵 문제가 완화될 경우 3%, 그리고 완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약 5% 내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도 하반기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연간으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또는 소폭 하락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아랍권의 결속과 전장이 확대되는 시나리오 3의 경우에는 민간 주거·비주거 건축 수주가 공공·토목 수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연간으로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며, 특히 전쟁의 진행 상황이 크게 악화될 경우 경기 침체와 가계 신용 문제가 서로 상승작용을 함으로써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질적인 투자 확대책 마련해야

시나리오별 국내 경제의 흐름을 고려해볼 때 이라크 전쟁 및 북한 핵 문제가 조기에 완화되지 않는 한 국내 경기 부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정부에서도 경기 조절을 위해 재정 지출의 조기 집행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순한 재정 지출의 조기 집행은 경기 회복의 전환점이 될 하반기의 경기 활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조기 집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설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많은 건설 관련 정책들이 짧은 기간 내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경우 국내 경제 및 건설 경기에 미칠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정책 논의 시점을 이라크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경기가 안정화된 이후로 연기할 필요성이 있다.

제1의 해외 건설시장 타격 불가피

해외건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동 지역은 우리나라 제1의 해외 건설시장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이라크 전쟁의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우리 해외건설은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전쟁 발발 직전인 2003년 3월 4일 현재 중동 지역에서 국내 건설업체들이 수행 중인 공사는 총 182억 4,500만 달러 규모이며, 이의 수행을 위해 1,732명의 우리 인력이 현지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전쟁 당사국인 이라크에서 수행 중인 공사는 1건도 없으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쿠웨이트의 경우 국내 5개 사가 10건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물론, 이미 현지 인력들은 대부분 위험 지역에서 철수한 상태이나 향후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동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해외건설에 대한 부정

시나리오별 해외건설 영향과 중점 대응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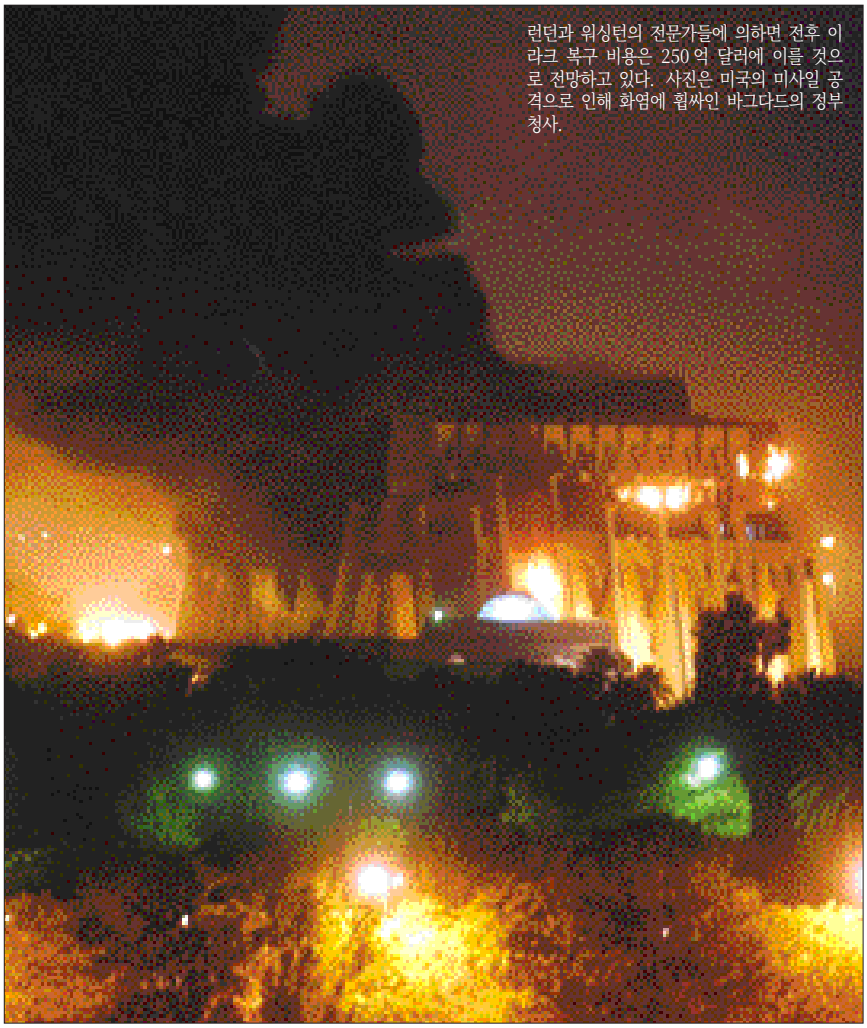
구분	수익성	수주	중점 대응 사항
시나리오 1	- 현장 철수/보전/복구 비용 미미 - 단기적으로 원화 절하에 따른 외환 손실은 미미 - 중장기적으로 달러화 강세와 북핵 위험에 따른 원화 절하로 대외 결제시 외환 손실 발생 가능성 내재	- 연초 수주 목표액(65억 70억 달러) 달성 가능(복구 공사에의 참여 정도에 따라 다소 증가 가능성 내재) · 이라크 복구 공사 발주, 중동 지역 절대 발주 물량 증가. 그러나, 국내 업체의 수주 정도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큼. · 중동 지역 발주 증가 가능 · 세계 건설 시장 예년 수준 유지 가능	- 단기적인 현장 보전 및 이라크 복구 공사에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전략 마련에 역량 집중 요망 - 중장기적으로 외환 손실 발생에 따른 대안 모색 필요
시나리오 2	- 현장 보전 및 복구 비용, 자재비, 수송비 증가 - 원자재 가격 상승 - 공사 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유동성 문제 발생	- 중동 지역 수주 목표치에 크게 미달 - 해외건설 전체 수주 55억 60억 달러에 그칠 전망 · 이라크 복구 공사 지연 · 중동 지역 경기 침체, 발주 지연 · 아시아 개도국 발주 물량 감소	- 수익성 및 유동성 확보 - 중동 외 지역, 특히 아시아 개도국의 물량 확보에 역량 집중 요망
시나리오 3	- 기존 공사 대금의 장기 미수금화로 대규모 대손 발생 - 해외건설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유동성 경색 위험 - 대외 결제시 달러화 약세에 따른 환 위험 내재	- 해외건설 장기 침체 국면 돌입 ·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의 발주 무기 연기 및 취소 · 해외건설 장기간 침체 국면 불가피	- 유동성 최우선의 경영 전략 전개 - 위기 관리 시스템 발동 - 국내 수주 물량 확보에 역량 집중 - 환 위험에 대비한 헷징 방안 마련

적인 영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라크 전쟁이 해외건설에 미칠 영향은 크게 기 수주 공사의 수익성, 걸프전 전(前) 이라크의 미수금 회수 여부, 그리고 향후 해외건설 수주에 미칠 영향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중 미수금 회수 가능성은 전쟁 기간보다는 미국의 승리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의 승리로 이라크에 미국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설 경우 미수금 회수 요구에 대해 우호적으로 반응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후세인 정권이 물러날 경우 미수금의 책임 소재에 대한 논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기 수주 공사의 수익성과 해외건설 수주는 향후 전쟁의 전개 양상에 따른 변수들인 유가 및 환율 변화, 전쟁 불확실성, 세계 경기 변화, 전후 안정 기간과 북핵 문제, 중동 지역에서의 과거 경험 등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조기 종결, 연초 수주 전망 웃돌 수도

먼저, 전쟁이 1개월 내에 종결될 경우(시나리오 1) 해외건설은 일시적인 공기 지연 외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 철수·관리·복구 비용 등 제 비



런던과 워싱턴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전후 이라크 복구 비용은 2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은 미국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화염에 휩싸인 바그다드의 정부 청사.

용이 발생하고 일시적인 유가 등락으로 자재가 및 수송비가 소폭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해외건설 전반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핵이라는 특별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쟁 조기 종결은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하는 반면, 세계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확대시켜 미국이 북핵 문제에 강경책으로 대응할 경우 달러화 강세 속에 원화 절하를 초래해 대외 결제시 대규모의 외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한편, 중동 지역 및 아시아 개도국의 발주 예정 공사들이 예정대로 발주되고 전후 대규모의 이라크 복구 공사 발주가 예상되어 중동 지역의 절대 공사 물량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전쟁 전에 미국은 이미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후원 아래 이라크 재건 비용으로 약 9억 달러에 이르는 입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런던과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재건 비용이 2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건설업체들의 이라크 복구 공사 참여 정도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간 우리 업체들이 중동 지역에서 구축한 우호적인 이미지, 네트워크, 인맥 등이 공사 수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나, ① 전후 복구를 위해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일반 건축 및 토목 공사가 우선 발주될 것이며, ② 부가가치가 높은 석유 플랜트 부문 공사는 미국과 영국 건설업체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③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EPC 경쟁력, 특히 E와 P 부문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후 원유가가 조기에 안정됨에 따라 전쟁으로 일시 침체된 세계 시장, 특히 아시아권의 소비 및 투자 심리도 조기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초 설정한 해외건설 예상 수주액인 65억 70억 달러 달성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이라크 복구 공사에의 참여 정도에 따라 전망치를 다소 상회하는 수주액 달성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 6개월 이상 장기화…

전쟁이 상반기까지 지속될 경우(시나리오 2) 전쟁 중 현장 및 장비에 대한 피해 증대로 전후 현장 복구 비용이 증대하고 유가 상승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과 수송비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연초 계획한 공사 대금의 회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 내 자금 유동성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중동 국가들의 경우 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수입의 증대 효과보다는 전쟁과 유가 상승에 따른 이라크 주변 아랍 개도국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기존 발주 예정 공사의 발주도 지연되어 중동 지역의 발주 물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가 급등에 따른 아시아 비산유 개도국의 수출 둔화로 경기가 침체되고,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이들 지역의 건설 투자도 감소할 전망이다. 이 경우 중동 지역에서의 수주는 연초 예상액인 35억 40억 달러를 크게 밑돌 것이며, 아시아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여타 지역에서의 수주 역시 감소해 올 해외건설 수주액은 연초 전망치에 크게 못 미치는 55억 60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전쟁이 6개월 이상 장기화할 경우(시나리오 3)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는 최악의 상태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 지역의 원유 운송 체계 동요, 이라크 유전 파괴 등으로 유가가 배럴당 40달러에 육박하고 불확실성이 만연됨에 따라 세계 경기가 크게 침체될 것이다. 특히, 선진국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중동 개도국과 아시아 비산유 개도국인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대만, 싱가포르 등의 경기 침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도 전쟁이 중동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장 관련 비용이 늘어나고 새로운 미수금의 발생으로 대규모의 대손(貸損)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의 발주 예정 공사가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상당 기간 동안 해외건설 물량의 대폭적인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다.

복구 공사 참여 위한 전방위 외교 노력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해외건설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 아래 전쟁의 변화 양상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먼저, 정부와 기업은 전후 이라크 복구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외교적인 노력 외에도 정부는 국내 및 해외 건설 경기 동반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공사를 조기 발주하고,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SOC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과거 중동 지역의 공사시 구축한 인맥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한편 기존에 제휴 경험이 있는 미국 및 영국 건설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발주처 협상력 제고를 통해 전쟁 관련 비용 발생과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을 원가에 산입하는 등 원가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환율 변동과 대규모 대손에 대비해 보수적인 경영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위기 경영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CJ

최윤기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민형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